

방탄소년단, 그레미 후보 불발 “미국은 뒤쳐졌다”

방탄소년단(사진)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피쳐링을 맡았던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할시가 방탄소년단의 ‘2020 그레미 어워드’ 노미네이트 불발을 아쉬워했다.



21일 ‘OSEN’에 따르면 할시는 ‘2020 그레미 어워드’ 전체 부문 후보자들이 공개된 전날 자신의 트위터에 “BTS는 많은 후보에 들 자격이 있었다.”며 “모든 부정성을 지우고 무시한다. 방탄소년단이 노미네이트 되지 못하고, 그들이 인정 받지 못했다니. 미국은 전 세계 움직임에서 매우 뒤쳐져 있어서 놀랍지도 않다. 그 타임은 곧 올 것이다.”라고 밝혔다.

음악 매체 ‘롤링스톤’도 이날 ‘BTS가 그레미에서 완전히 배제됐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BTS의 ‘맵 오브 더 솔: 페르소나’ 앨범은 비운세 음반보다 많이 팔렸고, 이렇게 빨리 빌보드 앨범차트 1위에 오르는 비틀스 이후 처음”이라며 “그런데도 BTS의 후보 지명 제외는 음악산업의 현실과는 강

렬히 대비된다. 그레미는 늘 그렇듯이 시대에 뒤쳐져 있다. 이제 글로벌하게 생각해야 할 시점이 됐음을 솔직히 인정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경제지 포브스의 음악전문기자 브라이언 톨리는 같은 날 “2020년 그레미상 후보에서 방탄소년단을 탈락시킴으로써 NARAS는 문화적 맹점을 다시 드러냈고, 슬프게도 대중음악 트렌드와 소통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꼬집었다.

‘그레미 어워드’는 미국레코드예술과학아카데미(NARAS)에서 주최하는 음반업계 최고 권위의 시상식으로 ‘빌보드 뮤직 어워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와 함께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으로 꼽힌다. 하지만 비영어권 아티스트와 힙합·랩 장르에 배타적인 것으로 유명하다. 이런 까닭에 전 세계 음악팬들을 장악한 방탄소년단이 ‘베스트 뉴 아티스트’나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같은 부문에 후보자로 지명될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할리우드 최초 K팝 소재 영화 제작된다

‘라라랜드’ ‘헝거게임’ 등을 전 세계적으로 히트시킨 미국의 배급사 겸 제작사 ‘라이언스게이트’가 K팝 걸그룹 멤버들의 데뷔 성장기를 담은 코미디 영화 ‘서울걸즈’(Seoul Girls)를 제작한다.



19일 할리우드 연예매체 데드라인에 따르면 ‘서울걸즈’는 영화 ‘캐츠’와 ‘박물관이 살아있다’에 출연해 국내에도 잘 알려진 할리우드 배우 레벨 윌슨(사진)이 시나리오를, 한국계 작가 김영일이 감수를 각각 맡았다. 연출은 영화 ‘나우유씨미’의 감독을 한 메리디스 워이 맡았다.

영화 ‘서울걸즈’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K팝 보이밴드의 오픈링 무대에 서는 기회를 얻기 위해

오디션에 참가하는 한국계 미국인 여고생과 그녀의 친구들 이야기다. 전 영국 걸그룹 출신 멤버의 도움으로 K팝 걸그룹을 꿈꾸는 ‘서울걸즈’ 멤버들이 큰 무대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게 된다는 이야기다.

할리우드 상업 영화에 ‘K팝’이 주요 소재로 등장한 적은 처음이다. 영화 내용 중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K팝 보이밴드’라는 부분이 K팝 스타 방탄소년단을 연상시켜 큰 기대감을 주고 있다.

라이언스게이트는 그룹 산하에 극영화 스튜디오와 TV 부문을 보유한 미국 내 시장 점유율 7~8위의 영화 제작 엔터테인먼트 그룹이다.

‘기생충’, 미 독립 영화제도 주목

내년 오스카(아카데미상)에 도전하는 국내 출품작인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Parasite)이 미국 독립영화제에서도 주목받으며 국제영화부문 후보에 올랐다.

미국의 대표적인 독립영화 시상식인 ‘인디펜던트 스피릿 어워드’는 21일 내년 2월 8일 로스앤젤레스 서부 샌타모니카에서 열릴 시상식의 국제영화부문 후보작으로 모두 6편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 가운데 ‘기생충’도 이름을 올렸다. ‘기생충’은 ‘인비저블 라이프’(브라질), ‘레미제라블’(프랑스), ‘포트레이트 오브 어 레이디 온 파이어’(프랑스), ‘레타블로’(페루), ‘더 수브니어’(영국) 등과 수상을 놓고 경쟁한다.

칸영화제 작품상인 황금종려상을 거머쥔 ‘기생충’은 미국에서 개봉된 뒤로 외국어영화 중 최고 흥행 성적을 거두는 등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31일 뉴욕타임스(NYT)가 “지난 5월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기생충’이 내년 아카데미영화제에서 외국어영화상을 뛰어넘어 작품상 후보로도 거론된다.”고 소개할 정도로 기생충은 아카데미상 수상 유력 후보작품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또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데드라인, 버라이어티 등 할리우드 연예매체들도 ‘기생충’을 내년 2월 9일 열리는 제92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국제영화상으로 이름이 바뀐 최우수 외국어영화상 최종 후보는 물론 작품상 후보로도 거론하고 있다.

| | | | | | | | | | | | | | |
|----|---|---|----|---|----|---|---|----|----|----|---|----|---|
| 1 | 철 | 부 | 2 | 지 | | | 3 | 장 | 닭 | | | | |
| | | | 4 | 봉 | 5 | 우 | 유 | 신 | | 6 | 허 | | |
| | | | | | | | | 7 | 구 | 8 | 정 | 물 | |
| | | 9 | 암 | 각 | 화 | | | | | | 수 | | |
| | | | | | | | | 10 | 막 | 걸 | 리 | | |
| 11 | 야 | 적 | 12 | 장 | | | | 바 | | | | 13 | 말 |
| | | | | | 14 | 사 | 각 | 지 | 15 | 대 | | | 죽 |
| | | | | | 16 | 몽 | 진 | | | 17 | 강 | 냉 | 이 |

| | | | | | | | | | |
|---|---|---|---|---|---|---|---|---|---|
| 5 | | 1 | | | | | | 4 | |
| 9 | 7 | | 1 | 8 | | | 5 | 2 | |
| | | | | | | | | | |
| | | 3 | | | 2 | | 8 | | 7 |
| | | | 9 | 7 | 4 | | | | 2 |
| 6 | 2 | | | | | | 3 | | |
| | | 1 | | | | 5 | | | 3 |
| | | | 5 | 9 | | 1 | | | |
| 2 | | | 4 | | | | 1 | | |

